

무공해차 전환 위한 국제협력 강화... 환경부·국제교통포럼(ITF) 맞손

- 환경부, 세계 환경의날 계기 국제교통포럼(ITF)과 무공해차 전환 정책협약체 발족
- 무공해차 전환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전 세계 정책 동향 조사공유 등 추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6월 5일 오후 부영호텔 (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 김영태)과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체 발족식을 연다.

이번 정책협약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무공해차 (전기·수소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무공해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무공해차 전환 촉진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과학적·기술적 전문성에 기반한 전 세계 정책 동향 조사 및 결과 공유, △수송 부문 탈탄소화를 주제로 하는 국제 학술회(세미나) 공동 개최 및 상호 참여,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30)’ 부대행사 공동 개최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정책협약체는 무공해차 전환 확대를 위한 양기관 간 공동행동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그간의 정책 경험과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수송 부문 탈탄소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무공해차 전환 정책협의체 발족식 개요.
 2. 국제교통포럼(ITF)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6881)



붙임 1

무공해차 전환 정책협약체 발족식 개요

- (행사명) 환경부-국제교통포럼 무공해차 전환 정책협약체 발족식
- (時/所) '25. 6. 5(목), 15:40 ~ 16:00 / 부영호텔 보드룸(Ⅲ)
- (주요참석자) 환경부,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 등
- (주요내용) 양해각서* 서명식, 기념 촬영 등

* (주요 협력분야) ▲무공해차 전환 관련 공동연구, ▲무공해차 글로벌 동향 조사결과 공유, ▲수송 부문 탈탄소화 세미나 공동 개최 및 상호 참여, ▲COP 30 부대행사 공동 개최

붙임 2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개요

-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정부간 교통 정책 협의체로, 전 세계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논의하는 플랫폼
 - ※ (경과) 유럽 세계대전 전후 복원을 위한 유럽교통장관회의(ECMT, '53)로 설립 → 논의 확대를 위해 국제교통포럼(ITF)으로 확대 개편('07)
- (회원국/소재지) 69개 국가('25.3월 기준) / 프랑스 파리
 - ※ 유럽 주요국(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미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 (예산/조직규모) 약 1,228만 유로(한화 약 173억원, '24년 예산안) / 총 직원 75명(공식 61, 파견·인턴 8, 계약 6, '23.10월)
- (주요업무) △ITF Summit(교통장관회의) 개최(매년), △교통현안(공급망, 자율차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등
- (국제적 위상) 전 세계 69개국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부 간 조직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관장하는 세계적인 조직
 - OECD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특별기구(Special body)로서, OECD와 행정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나 정무적으로는 독립된 기구